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와 부인 김덕희 씨가 4일 밤 당선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와 부인 차옥주 씨가 4일 밤 당선 확정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장휘국·장만채 '압승'…광주·전남 혁신교육 '가속도'

세월호 참사 뿔난 '앵그리맘' 무능 보수에 등돌려

정부 교육정책싸고 충돌 우려…소통·화합 과제로

진보교육감 재선 의미

'세월호 참사'로 뿔난 표심은 진보진영의 교육감을 선택했다.

접전을 예상했던 광주시교육감 선거도 장휘국 후보가 10% 이상 표차를 내면서 압승했다. 광주·전남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모두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들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보편적 교육복지 등 진보교육 정책은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교육계는 당선자들에게 "진보논리에 묻혀 분열됐던 교육계를 아우르는 포용과 화합, 소통의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진보교육감 승리 요인=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의 압승은 '후보단일화의 힘'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정희곤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면서 진보진영이 결집하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반면, 엇비슷한 정책의 비(非) 전교조 진영은 난립해 표를 나눠먹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태'도 진보진영에는 약이 됐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현직 프리미엄은 가치를 발휘했다.

화가 난 '앵그리맘'은 무능한 보수에게서 등을 돌렸다. 학력 저하 등 '반 전교조 정서'로 진보교육감에 대한 '비토'가 확산되던 시점에, 세월호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격의 화살이 무능한 보수로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진보교육 활착=진보성향의 교육감의 재선은 광주·전남의 교육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직선 1기가 광주교육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시간이었다면, 2기는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혁신을 위한 도도한 물줄기가 모든 학교 현장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전념할 계획"이라며 "협력·토론수업 중심으로 수업 구조를 바꿔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와 작은학교 지원, 농어촌학교 통학문제 해결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교육복지를 튼실하게 하고, 초·중학교 독서토론 수업을 통해 일반고는 진학률을, 특성화고는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교육력 제고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과 충돌 예고=이번 선거 결과, 교육권력의 축이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엇박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휘국·장만채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평준화 확대 ▲고입선발고사 폐지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 ▲학원교습시간 단축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의 공동공약을 내놨다. 상당부분 교육부와의 정책과 엇갈린다.

정면 충돌도 우려된다. 이달 중순 예정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재판이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광주·전남에 대한 차별 지원이 되풀이될 우려도 있다. 실제, 직선 1기 때 교육부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최하점을 받아 특별교부금을 대전보다 1003억원이나 적게 받았다.

◇소통·화합은 과제로=교육계의 화합과 소통은 과제로 지적된다. 직선 1기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광주 교육계는 전교조와 비전교조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재선에 성공한 만큼 비전교조 진영을 끌어안는 포용과 화합의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소통에 대한 요구도 높다. 광주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는다"며 "교육계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과 화합, 소통의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투·개표 이모저모

94세 최고령 할아버지 소중한 한표 행사…"내가 뽑은 후보 깨끗한 정치했으면"

○…광주 북구의회의원 북구가선거구 무소속 이왕섭 후보 지지자들이 각 투표소 입구에 부착된 이용섭 후보 사퇴 벽보를 철거해 달라고 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이날 중흥1·2·3동, 신안동, 중앙동에 설치된 각 투표소 입구엔 '기호 6번 광주시장 무소속 이용섭 후보 사퇴'라고 적힌 A3 용지 크기의 벽보가 부착돼 있었는데, 일부 유권자들이 벽보에 기재된 '이용섭 후보'를 '이왕섭 후보'로 착각한 나머지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지지자는 "자칫 후보가 사퇴한 것으로 착각한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벽보 철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한다솜(여·21·조선대 문예창작과 1년)씨가 광주시 동구 서남동 제1투표소에서 생애 첫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한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남동 제1투표소가 설치된 서석초교를 홀로 방문,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후보 등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한씨는 "생애 첫 투표인데, 며칠 전부터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관련,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며 "내가 선택한 후보자가 꼭 당선돼 깨끗한 정치를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인 유수완(94)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투표소를 찾아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유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3투표소인 전남중학교를 방문했다.

투표소에서 일하던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려 하자, 유 할아버지는 "투표소까지도 혼자 왔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유 할아버지는 투표소에 도착한 뒤 10분만에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시 동구 충장동 제2투표소에선 20대 남성이 "친구와 투표에 참여했는지 서로 확인키로 했다"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찍다가 적발됐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제2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이 남성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적발,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돌려보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소 입구를 빠져나오는 젊은 사람들 중 몇몇의 손등에는 이른바 '인증용 손도장'이 찍혀있었다. 지방선거는 처음 치른다는 김정효(23·화정동)씨도 인증용 손도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그 자리에서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씨는 "친구들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증샷을 찍어 SNS에 많이 올리고 있다"며 "내 주변 대다수 친구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이미 투표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SNS에 인증샷을 올려 주변 지인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싶다는 김씨는 "최근 세월호를 비롯해 정부의 미흡한 대처, 무책임한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한 표가 4년을 바꿀 수 있다는 슬로건이 투표장으로 찾아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